

SCU 안전누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소식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송고한 노동, 41 × 31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Artist Statement

동양화에서 자연은 곧 신(神)이다. 인간의 이성이나 욕망으로는 결코 소유하거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으로, 그 앞에서 인간은 한 점의 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그 미물이 자연 앞에서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가는 장면에서 경건함과 숭고함을 본다. 반복되는 작업자의 몸짓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다가온다. 그 몸짓은 마치 사제가 신 앞에서 행하는 제의의 행위와도 같으며,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나의 회화는 이러한 장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현장'으로 바라보며, 그 안의 웅장함과 거칠음, 그리고 그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노동과 흔적을 함께 담는다. 이는 자연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감정과 태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존재의 호흡을 회화 속에 기록하려는 시도다. 결국 나의 그림은 자연이라는 압도적인 신적 질서와 그 안에서 작게 살아가는 인간의 몸짓이 맞닿는 접점, 그 경계의 떨림을 탐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서민지

프로필	2022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2014 부천대학교 만화&2D영상그래픽과 전문학사 졸업
개인 전시	2023 《캔버스 그리고 바다》, 경기, 시흥오이도박물관(2023.10.10 ~ 10.22)
단체 전시	2025 독점적 감각, 갤러리 디 아르테 청담 . 서울 2025 솔내아트 특별기획전시, 솔내아트센터, 경기 2025 제75회 경기미술협회 정기회원전 경기미술인의 합성전(실사 전시, 경기 일대 야외 순회) 2024 김영이론, 갤러리 디 아르테 청담, 서울 2024 프로방스 언덕의 화가, 갤러리 사이 반포, 서울 2024 열린 갤러리 한국미술협회 초청전, 청년협업마을 열린 갤러리, 경기 2024 제74회 경기미술협회 정기회원전 경기미술인의 합성전(실사 전시, 경기 일대 야외 순회) 2024 제32회 시흥미술협회 정기회원전, 갤러리시흥, 경기
수상	2023 인천광역시미술전람회, 특선, 국민예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 2021 예술작품공모전, 대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 2021 국제작은작품 미술제, 신진작가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울 2021 인천광역시미술전람회, 특선, 국민예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 2019 인천광역시미술전람회, 특선, 국민예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

2025 Vol.2 CONTENTS

SCU 안전누리

04	Congratulatory Message I 안전관리학과 학과장, 학장 강태선 교수
06	Congratulatory Message II 제3대 안전관리학과 학생회장 박호림
08	Safety Management 학과 소개
10	Curriculum 교육 과목
14	People I 학과 교수
16	People II 학생회 활동
18	Case Presentation
26	Media Talk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 중심 안전전문가,

안전관리학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SCU) 안전관리학과는 2021년 신설됐습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초기이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제정된 시기입니다. 당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중처법의 전담자 등 현장의 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현장은 더 이상 법적 선임 요건을 채우는 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신의 관련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적절한 태도와 경험까지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대학 커리큘럼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만들어진 안전공학과 교과목에서 별 변경이 없습니다. 국가 기술·전문자격은 어떻습니까? 문제은행은 현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현장 응용력보다 점차 단순 암기형 법령 지식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국가직무능력 표준(NCS)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관련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여 공론과 숙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향식으로 국가가 제정하였으므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요컨대 커리큘럼, 자격증, NCS 등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 개의 제도가 밀접하게 연동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상호 환류되지 않고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CU 안전관리학과는 2023년 IOSH Competency Framework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정평이 있는 산업안전보건 부문 역량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존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초로 한 커리큘럼을 만든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해마다 재검토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충분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졸업장이나 자격증만으로 사람을 선별하지 않으며 역량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차관급으로 승격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SCU 안전관리학과는 현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CU 안전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학생과 동문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늘 기다립니다.

안전관리학과 학과장, 학장
강태선 교수

안전을 배우며 성장하고,

현장에서 배운 삶의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학우님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U 안전누리」가 어느새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호 발간에 기쁨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2년, 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여 첫 근무지로 속초에 배치받았습니다. 통신 현장에 첫발을 디딘 날, 중앙시장 앞 맨홀에서의 작업은 제 인생의 시작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위험이 공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방독마스크도 없이 악취 가득한 맨홀에 직접 들어가 오물을 퍼 올리던 작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작업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지만, 누구 하나 제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저는 “이게 현장의 현실이구나”라고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절 현장은 지금처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착용이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맨홀 가스에 노출되거나 눈 쓰인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되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사고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현장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후배로서, 동료로서 묵묵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강릉, 동해 등 여러 지역으로 전출되며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겨울 눈 속을 700m 걸어가 고령의 고객 댁 전화선을 복구해 가족 간 통화를 가능하게 했던 날의 보람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전 사고, 낙상, 장비 미흡 등 위험은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왜 안전이 늘 뒷전일까?”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2014년, 회사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업무 환경으로 이동하며 다시 통신망 점검과 고객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의 오해와 소외, 부당한 전출

등 인간적인 갈등도 함께 겪으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왕 하게 된 거,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수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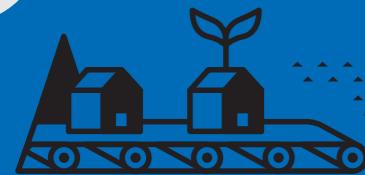
수십 년 동안 제가 겪은 현장의 모든 위험과 누적된 피로, 부상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 지식과 관리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안전이 개인의 생존이자 조직의 기본 가치라는 믿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이론을 현장 경험과 접목시켜 후배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직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안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안전은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에 입학한 것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는 배움의 열정으로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3대 안전관리학과 학생회장

박호림(안전관리 3학년, 123학번)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전관리학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위험도 또한 커지고 집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보도되고 있죠. 가끔은 어린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저희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이후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일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내실있는 안전 전문가의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1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안전관리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에서의 사이버교육에 기틀을 다지고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전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확

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새로운 융합전공을 세상에 내놓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부 산하 산업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있습니다. 산업장 안전과 건강문제를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단 창립 당시 노동자 10만명당 33.5명이나 되던 사망자를 4.6명 수준으로 낮추는 쾌거를 일구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국가의 노력이 있었지만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안전관리 전공을 통해 노동재해 없는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전공을 졸업하면서 학생들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관련 국가자격증을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에 다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 욕심을 내서 가능한 많이 취득하시고 그러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활

동히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소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전공자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적,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안전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차별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그 안전권리 확보에 앞장서는 인재를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길러내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전관리학과에 계속적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CU 안전관리학과 인재상

안전보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윤리적·건설적 환류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조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문인

증거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안전을 응호하는 책임있는 산업안전 전문인

소통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소통·협력해 건설적으로 환류하는 소통인

통섭인

사업장 위험·안전관리에 관한 인문·사회화, 자연·공학에 걸친 정보와 기술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섭인

증거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안전을 응호하는 책임있는 산업안전 전문인

SCU 안전관리학과의 핵심 직무역량

역량이란 개인이 특정 업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학과의 핵심 직무역량은 위험관리 역량, 산업안전보건법규 역량,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이 역량은 SCU 안전관리학과가 우리나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량 가이드라인인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The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표준역량 기본틀(Competency framework, Professional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위험관리
역량

산업재해 위험을 식별·프로파일링하고 평가·분석·통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량

산업안전
법규 역량

산재예방에 필요한 법규를 이해·해석해 책임자에게 조언함은 물론 법규의 취지를 고려해 위험을 줄이고 원칙과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소통·협력해 건설적으로 환류하는 소통 역량

CURRI CULUM

DEPARTMENT OF SAFETY MANAGEMENT

건설안전(Construction Safety)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근로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식별,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한다.

건설안전관리실무

(Practical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직무의 실무를 이해한다.

건축구조(Building Structural Analysis)

건축 설계에 있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 배양. 건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들의 형태와 구성을 이해하고 하중 및 거동을 분석해 안정적인 구조 디자인 방법을 습득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현대 경영의 관점에서 매우 빠르게 진전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아울러 현대적인 경영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 경영의 전개과정과 경영활동의 관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군산업보건관리

(Industrial Hygiene Program for the Military)

군대 내 산업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실무를 이해한다.

군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of Military)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군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이론과 사고 발생 이론 등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예방및관리(Prevention and Management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직업성 질환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과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습득한다.

기계공작법(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본 과목에서는 기계재료를 각종 방법으로 성형하여 기계를 제작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작방법을 취급하는 과목이다. 주조,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수기가공, 기계가공 등을 배운다.

기계안전(Machine Safety)

기계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기업윤리와 CSR(Business Ethics and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기업과 사회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기업재난관리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재해나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기업의 핵심업무를 신속히 복구하고 연속성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절차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

노동법(Labour Law)

우리 헌법이 근로자에게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노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근로보호법령 및 노사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학습한다.

데이터과학입문(Introduction to Data Science)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중 많은 것들은 통계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통계학을 수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의학, 금융, IT 등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학습한다.

물리적유해인자관리

(Management of Physical Hazards in the Workplace)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하여 학습한다. 소음을 비롯하여 온열, 이상기압, 방사선 등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평가, 관리방법을 학습한다.

방폭공학과가스안전

(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and Gas Safety)

화재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폭의 원리와 적용을 배우며 특히 전기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작용해 화재폭발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초점을 둔다.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법학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 법학공부에 필요 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병리학(Pathology)

각 계통별 질병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 하여, 병원실무 및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갖춘다.

보건학개론(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보건학에 대한 입문과목으로 보건학전반을 다룬다. 공중보건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교육, 환경보건, 인구, 역학 및 질병 등 보건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한다.

사고조사개론(Introduction to Accident Investigation)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훈을 도출하는 사고조사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

사업장건강진단관리실무

(Occupational Health Surveillance Program)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건강진단 등 다양한 종류의 법정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의 실무를 이해할 수 있다.

산업독성학및작업환경관리(Industrial Toxicology & Work Environment Management)

산업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독성을 이해하고,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측정법 및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대해 공부한다.

산업안전관계법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elated Laws)

산업재해의 역사, 사고 발생 이론, 안전관리 원칙을 배울 수 있고 이에 기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적인 산업안전관계법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산업안전관리론(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익힐 수 있는 수업. 안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활동 습득 등을 다룬다.

산업위생관리(Industrial Hygiene Management)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제공하고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산업위생관리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체계를 익히게 된다.

산업환기개론(Introduction to Industrial Ventilation)

산업환기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등에 의한 각종 중독 질환 또는 화재·폭발 등과 같은 심각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학적 대책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실무(Practice on Asbestos Removal)

발암물질인 석면의 해체 및 제거방법을 비롯하여 기타 석면 관리 일반에 관하여 배운다.

심리학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현상을 이해하고 고찰한다. 심리학의 영역 중 발달, 동기, 정서, 지각, 학습, 기억, 지능, 성격, 사회행동,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을 개괄한다.

아시아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Asian Society)

국내 체류 중인 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안전공학개론(Introduction to Safety Engineering)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 분야별 재해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알고, 각 분야별 사고방지 대책과 그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안전교육**(Competency-Based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안전문화 및 안전심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교육방법론 응용을 통해 안전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배경과 정의, 구성요소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배운다.

안전보건관리실무**(Practic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의 실무를 이해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성평가의 다양한 방법과 위험요소의 관리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안전관리의 기초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유체역학은 정지되어 있거나 움직이는 액체와 기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유체유동의 현상을 학습한다. 유체정역학, 유체동역학, 유동의 미분해석, 상사법칙과 차원해석, 관내점성유동, 물체주위의 유동, 개수로 유동 등에 관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과유튜브미디어**(Artificial Intelligence and YouTube Media)**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작업환경측정및평가(Working Environment Monitoring and Exposure Assessment)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위험성평가,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관계법규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작업환경측정 기술 전반을 배운다.

재료학(Building Materials)

건축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성능, 미적 활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전기기기(Electric Machinery)

각종 전기기기 및 장치에 관한 개념, 구조,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해 학습한다. 본 과목에서는 전기기기 기초이론,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변압기, 동기발전기, 유도전동기 등을 교육한다.

전기안전(Electrical Safety)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전기전자통신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ity,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전기전자공학을 학습하기 이전에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전기 분야의 전기개념, 전기기기, 에너지 등을 학습하고, 전자분야의 물리전자, 전자회로, 전자시스템을 배우며, 통신분야의 통신이론, 통신망, 통신서비스 등을 학습한다.

전력공학(Power Engineering)

송전과 변전에 관한 이론 및 시설 등을 학습한다. 송전 분야로는 전선로, 송전 특성, 안정도, 송전선의 고장 계산 등을 변전 분야로는 변전소, 배전계통의 구성, 배전선로의 공법, 가공설비 등을 학습한다.

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

전자회로는 전기·전자·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IT 분야에서 다루는 중요한 기초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다이오드, 정류회로, 트랜지스터, 증폭기, 연산증폭기, 능동필터 등을 교육한다.

조명공학의기초(Introduction to lightning engineering)

이 과목에서는 조명기술의 기초와 응용을 균형 있게 다루며 기본적인 현장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LED 등 최신 광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해부생리학(Anatomy and Physiology)

해부생리학은 보건학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기초의학과목이다. 학습자는 세포·조직·기관·개체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과 생물학적 성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어떤 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집행하는가를 다루는 절차법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체법적인 형법보다도 더 중요하므로 각각의 절차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화공안전(chemical safety engineering)

화학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다룬다.

화학물질관리(Chemical Substance Control)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지역주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배운다.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수질, 대기, 식품, 곤충 등 건강과 관련된 환경보건 문제를 다룬다.

회로이론(Circuit Theory)

회로는 전자소자에 의해 연결 구성된다.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전압소스, 전류소스, 전송라인, 스위치 등이 대표적 전자부품이다. 본 과목은 전기 및 전자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교육하며 키르히호프의 전압 및 전류 법칙, 워의 법칙, 노턴의 정리, 테브난의 정리, 중첩 원리 등을 학습한다.

2026년 신설 교과목**안전심리(Safety Psychology)**

안전보건전문가로서 이해하여야 할 인간의 특성, 휴먼에러, 위험감수성, 안전문화, 정신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육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론(Introduction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 및 철학, 제도와 발전 과정, 이론과 법률 쟁점,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등을 배운다.

인간공학및시스템안전(Ergonomics and System Safety)

인간공학의 개념 및 평가방법, 유해요인 및 그 메커니즘 등을 전반적으로 습득함으로써 관련한 재해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다.

농작업안전보건(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농작업 안전보건의 개념 및 평가방법, 유해요인 유형 및 노출 특성, 관리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습득함으로써 관련한 재해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SAFETY MANAGEMENT

FACULTY



학과장, 학장 강태선 교수

주요경력

서울대 보건학박사(산업보건학),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등

담당과목

위험성평가, 화학물질관리 등 7과목



책임교수 김미주 교수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

담당과목

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



김현주 교수

주요경력

한양대학교 의학박사
現 직업환경보건의

담당과목

사업장건강진단관리실무



김해훈 교수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공학사(화공생명공학전공)
現 안전보건공단 PSM 부문 과장

담당과목

화공안전



박찬수 교수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공학박사(전자공학)

담당과목

전기전자통신개론



박희철 교수

주요경력

인천대학교 공학박사(안전공학전공)

前 삼성전기 상무

담당과목

산업안전관리론, 안전공학개론



강주성 교수

주요경력

(주)포스코 보건기획실장

담당과목

사고조사개론



김정덕 교수

주요경력

한국교통대학교공학박사(안전공학전공)

現 안전보건공단 차장

담당과목

기계안전



오병한 교수

주요경력

경기대학교 공학박사(건축공학전공),
前 안전보건공단 실장

담당과목

건설안전



조준환 교수

주요경력

경기대학교 공학박사(건설안전학전공)
前 대림이앤씨 상무

담당과목

건설안전관리실무



안진수 교수

주요경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박사
現 명지안전보건연구소(주) 대표

담당과목

산업환경기기론



도목현 교수

주요경력

아주대학교 보건학석사
現 한강수병원 재활치료센터장

담당과목

근골격계질환예방및관리



변형식 교수

주요경력

한국교통대학교 공학박사
(안전공학전공)
前 안전보건공단 부장
現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

담당과목

전기안전, 드론운용및정비,
방폭공학과가스안전



김도연 교수

주요경력

동국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경영정보전공)
現 (주)차후 상무

담당과목

기업재난관리개론



강공언 교수

주요경력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교수

담당과목

환경보건



조해경 교수

주요경력

가톨릭대학교 보건학석사
前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수
現 (재)피플 군안전보건연구센터 고문

담당과목

석면해체·제거작업실무

제3대 안전관리학과 학생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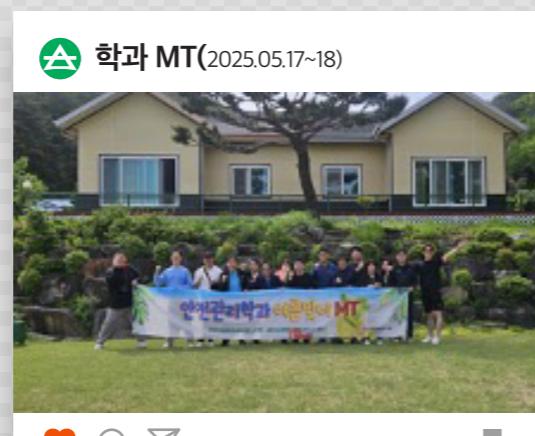
학위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성악과 교수님들의 멋진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집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학기 개강총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학년 새학기의 시작인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범부리 펜션에서 안전관리학과 MT가 있었습니다. 물 맑고 공기 깨끗한 곳에서의 하룻밤으로 힐링도 하고 학우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연합MT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연합MT 행사를 갖는데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학우님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일하라 공부하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이런저런 얘기로 밤 늦도록 숙소에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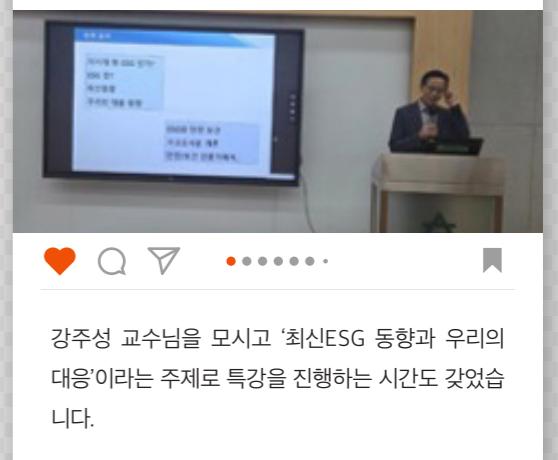
우리 안전관리학과의 대소사를 챙기고 있는 학생회 임원진들이 개강총회와 'SCU 안전누리' 편찬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학기에 졸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 개강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신·편입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고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주성 교수님을 모시고 '최신ESG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시간도 갖았습니다.

「SCU 안전누리」는 안전관리학과 학생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학과 입학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 자격증 합격 후 기는 물론 현장의 소식까지 학우와 동문 여러분의 알찬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시험 응시 소감과 졸업을 앞두고

김상진(안전관리학과 2025년 졸업, 124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졸업하게 된 안전관리학과 김상진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졸업이란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의 대학 생활은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시험 응시 소감
학과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산업위생 분야가 특히 쉽지 않은 분야라는 것입니다. 작년 '산업안전기사'에 합격한 후 수기를 작성했을 때, 지도교수님께서 "산업위생관리기사까지 취득하면 금상첨화다"라고 격려해 주셨던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응원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과 수업을 통해 산업위생 분야의 기초를 닦아 두었기에 수험서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윤정 저자의 수험서를 사용했습니다.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공식과 계산 문제가 많아 반복 연습이 필요했고, 나이 탓인지 순발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체감했습니다. 2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준비한 끝에 필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이 암기 위주였다면, 이번 시험은 이해와 계산이 핵심이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수식을 정확히 계산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 1과목, 2과목: 약 70점

• 3과목(실기 연계 핵심과목): 55점
• 4과목, 5과목: 각 100점
평균 83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시험 직전까지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학이 나올까 걱정하며 시험장을 찾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을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누를 때 느낀 설렘과 안도감은 언제 경험해도 특별한 감정입니다. 필기시험이 끝나자마자 2주 뒤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잠시 그 시험 준비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시험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기에서는 계산 문제의 정확성과 속도, 즉 순발력이 중요하므로 반복 학습을 통해 실력을 더욱 다지고자 합니다.

합격하게 된다면, 또 한 번 '합격 수기'로 후배 학우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도 꼭 원하시는 자격증과 목표하신 진로를 이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부하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을 마음 깊이 전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2년 동안 즐거웠던 학교생활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함께 배우고 웃었던 학우들, 아낌없는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언제나 학과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아래의 시조로 달래며 글을 마칩니다.

고려시대 시조 - 우학 「한호가」

한 손에 가시 둘고, 또 한 손에 박매 둘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박매로 치려 헛어니,
백발이 제 번서 알고 지름길로 오려라.

백수에서 감시단을 거쳐, 안전관리자로

이정훈(안전관리학과 2025년 졸업, 121학번)



2024년 추석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침, 사장님께 호출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예정된 일감이 없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지만, 내년쯤 스스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충격 속에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곧장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아직 자격증도 없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 취업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감시단으로 경력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지원은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연락이 왔고, 다음 날 바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필로 이력서를 작성하며 2011년부터 쌓아온 인테리어 현장 경험을 A4 한 장 가득 채웠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안전 분야 경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추석 이후 건설사 안전팀과의 현장 면접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짧게나마 감시단 경력을 기재해주었고, 이천 지역 현장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귀가 직후 현장소장으로부터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근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속초 지역 제안도 있었지만 거리 문제로 포기했고, 결국 한 달여 간은 쟁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판교 지역 인테리어 현장 감시단 모집 공고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했고, 이번에는 마침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지는 철거 공사가 한창인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안전 지적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대기업 직발 감시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신 산업안전 트렌드와 강화된 법 기준, 실제 사고 사례, 공사업체 및 대기업 안전관리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실무적인 안전관리 지식과 서류 작성 방법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인테리어 현장 관리자 경험이 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안전관리'로 연결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 저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첫걸음을 단단히 다져준 기반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해고 통보는 저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경력 부족으로 좌절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감시단은 서류 업무보다는 현장 중심의 순찰(Patrol)과 조치 지시 등 현장 감시 성격이 강한 직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체득한 안전 마인드와 실무 감각은 자격증 공부나 이론 교육 뜻지않은 귀한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이 감시단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협력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벽도 많지만, 학교에서의 배움과 인테리어 현장부터 감시단까지의 실전 경험은 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제가 겪은,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와 경험이 다른 학우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전과 추억, 졸업 그리고 희망을 향하여



감사 김종길(안전관리학과 2025년 졸업, 123학번)

안녕하세요. 안전관리학과 4학년 김종길입니다. 창간호에서는 입학의 설렘과 희망을 담은 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2호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느끼는 현실적인 아쉬움과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3일,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든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이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바람 속 입학의 기쁨으로 시작해, 여름의 뜨거운 열정, 가을의 추억,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캠퍼스는 제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입학의 계기와 다짐

입학 전, 한 진로 컨설턴트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위해선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A, 경제적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플랜 B,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플랜 C” 이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에 입학해 각 계획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학교생활은 바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강의를 들었고, 교수님들의 강의는 이론과 현실을 넘나들며 제게 큰 배움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과제, 토론, 출석, 시험, 참여도까지… ‘マイ페이지’의 붉은 알림 숫자들을 하나하나 지워갈 때마다 느낀 뿌듯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수님들, 학생 공부시키려 작정하신 건가요?”라며 끄적대기도 했지만, 모든 과정을 완수할 때마다 성취감은 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한 학우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학우들과의 만남입니다. 산과 들, 바다를 함께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배움의 길

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떤 학우는 화물차를 운전하시지만 무대에서는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학우는 춤, 비트박스, 사회 진행까지 다재 다능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온라인 중심이지만, 학과·동아리·지역 모임·채팅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얼굴을 익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병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만큼 정이 깊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주한 현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아쉬움도 남습니다. 입학 전 세운 세 가지 목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랜 A,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관리자가 되는 꿈은 여전히 간절합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따면 되지만 ‘나이’라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몇몇 위탁업체에 지원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젊은 사람을 원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플랜 B로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공조냉동설비에너지관리과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을 가진 분들과 함께 배우며 실제 취업 연계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50대 후반 이상에게는 추천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제는 틈새시장을 찾아 능력껏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취업센터를 찾아가 보았지만 청소나 경비 같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도전과 사회의 과제

2024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67입니다. 인구 절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폐지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은퇴하면서 노동시장의 공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자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방향을 잡지만, 5년 내 77%가 폐업한다는 통계는 절망을 안겨줍니다.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시니어 세대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경험 있는 시니어 인력이 사회 곳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졸업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저 역시 다시 도전하려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학교생활은 참 즐거웠습니다. 정 많고 의리 있는 학우들과 함께한 시간, 뛰어난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도, 그리고 학과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도 희망과 기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전관리학과에서 ‘건강’을 이야기하다



기획부회장 이동환
(안전관리학과 4학년, 124학번)

안녕하세요. SCU 안전관리학과 학우 여러분. 소식지 ‘안전누리’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학과에 들어오면 대부분 ‘안전관리자’, ‘현장 관리·감독자’라는 역할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안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가 이 학과에 편입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바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 즉 산업위생 관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안전한 작업 환경도 의미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분진이나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과 달리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미리 지키는 일은 사고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건설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실은 버스를 통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건강 관리 없는 안전은 허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쌓고 싶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일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에 이론이 더해지면서 점점 학습이 흥미로워졌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건강과 안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안전관리라는 큰 개념 안에서 ‘건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과가 학우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전문성과 연대를 갖춘 학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학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드는 안전



수석부회장 이종현(안전관리학과 2학년, 124학번)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학우 여러분, 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학과 수석부회장 이종현입니다. 2년 전,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뼈 골절로 6개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손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일상이 이제는 책상 앞에서 강의를 듣고 교안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주말에는 과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학업 초기에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는 즐거움과 성장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학하신 학우 여러분 중에도 학업과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왕 시작한 공부라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학과 수석부회장으로서 여러 행사와 학우 지원 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큩니다. 최근 진행된 MT에서는 면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 덕분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중심의 수업 특성상 학우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개강총회, MT, 한마음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SCU 안전관리학과는 신생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과 동문을 포함해 활발한 활동과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과 소식지 「SCU 안전누리」가 창간되었고, 올해도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현장의 아차사고 사례, 안전 관리 노하우, 혹은 SCU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등 어떤 이야기든 소식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SCU 안전관리학과가 계속 성장하고, 학우 여러분 모두가 그 성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학교생활도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장희왕(안전관리학과 3학년, 125학번)



미야역

꿈결에 들려오는 광고소리가

익숙하게 나를 깨운다

아마도 이 일을 하면서

내 맘에 움튼 아쉬움을 깨운다.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응어리진 갈증을 느낀다

이이젠

종착역이 아닌 출발역

긴장과 설레임으로

강의를 듣고

낯설움과 기대감으로

학교와 학과 행사에 나간다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들

아주 벅찬 신선대를 향해

내 맘에 움튼 아쉬움을 깨운다

7시

하나둘셋넷

체조 소리가 울려 퍼진다

금일 5명 2층 렌탈 작업

안전대 멘다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좋아조아조아

짝짝짝

피익피익 소리

후르륵 커피 소리

연기 내뿜으며

오늘도 힘찬 다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의미치료와 심리학으로 바라본 안전관리

유정한(안전관리학과 3학년, 125학번)



로고스테라피(의미치료)와 헐로코스트에서의 생존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 호주 멜버른 강의 차 갔던 때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그가 멜버른 대학으로부터 부메랑을 선물받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메랑을 던지면 반드시 던진 사람한테 돌아온다 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주민 사냥꾼에게 부메랑은 원래 사냥감을 맞추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프랭클이 들은 바에 따르면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뿐이랍니다. 바로 '사냥감이라는 목표물을 놓쳤을 때만 돌아온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를 잊은 쾌락이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숨겨진 '의미'를 찾지 못하여 결국 삶의 실패에 이르게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안전 분야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예방에 유용하게 적용될 관점일 수 있기에 대표적인 이론들과의 접점을 통해 점검해 보려 합니다.

1. 흰곰 효과(White Bear Effect, 아이러니한 사고 억제)는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오히려 해당 사고를 더 강하게 떠오르게 만듦으로써 억제하려는 대상이 감시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 결국 사고 억제에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안전표지는 "하지 마라"라는 지시가 오히려 사고 대상을 더 떠올리게 하기에 긍정 지시형으로("안전통로 이용", "안전 벨트 착용") 설계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2. 더닝 쿠르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는 능력이 낮은 사

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단순히 "무능한 사람이 자만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식할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사고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3. 타겟 픽세이션(Target Fixation)은 "시선이 가는 곳으로 몸(또는 차량)이 따라간다"는 원리로 고정된 시선이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이론이죠. 주로 도로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코너링 중에 전봇대에 시선이 꽂혀서 사고가 나는 현상을 말하죠. 현장에서도 위험한 곳들을 가려놓지 않고 안전표시도 없이 단순히 '하리' '하지 마라'라는 말로 만족한다면 그 사각지대 안에 서의 타겟 픽세이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4. 프레임 효과(Framing Effect, 인지틀 효과)는 앞에서처럼 동일한 사실이나 정보라도 어떤 틀(frame)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되는 인지 편향을 말하죠. 사람은 정보를 "증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미망·언어적 틀·맥락을 통해 해석하기에 이 "틀 짓기"에 의해 사고와 행동이 구조화된다고 하죠. 따라서 의무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새롭게 틀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효과들은 단독으로 하나씩 생겨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고를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겹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향이 이해하기 힘든 인간 심리를 좀 더 열린 자세로 깊이 있게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안전시설을 전문업체에서 오랜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동 동선이나 안전난간대는 왜 꼭 눈에 잘 띠는 색상으로 가지고 안전표지를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잘 띠는 색이고 좀 더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안전관리자 생활을 시작할 때 과거의 수동적인 지휘감독자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새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검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벗어난 지식은 곁들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는 지식만으로는 사업장을 안전하고 온전하게(安全)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에 늘 위험 요소를 보려 노력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것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며 여러 의미로 청결한 현장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안전하게 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대해 봅니다.

도전



주영복

(안전관리학과 2학년, 124학번)

닫힌 문을 넘어
내마음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작은 한걸음을
또 여기 서울사이버대학에서
내딛는다

고향의 바람이 멀리서 불어와 내 마음
벅차게하고 때론 등을 떠밀며 다시 일으켜
배움의 길위에 빛을 심는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멋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는 산업 현장의 안전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안전관리의 핵심 이슈와 현장 중심의 통찰을 모아 소개합니다.

기후위기와 노동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도전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출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기후위기와 노동안전...
태양광 풍력도 예외는 아니다
(강태선 교수)



최근 몇 년간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직접 마주해야 할 노동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에 출연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 학과 강태선 교수는 기후변화가 노동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함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서도 새로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안전 전문가로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I.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산업재해 위험

강태선 교수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산업재해가 단순히 열사병에 그치지 않고, 노동 현장 전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직접적 위험의 확대

- 열 스트레스: 폭염은 열사병 및 기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고 발생률 자체를 30°C 이상에서 5~10%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피로 또는 일사병 증세로 인한 고소 작업자의 추락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 자외선 노출: 실외 노동자에게 자외선은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 유해인자(Group 1)로, 피부암 등을 유발한다.

• 간접적 위험 및 취약 요소

- 화학물질 노출 증가: 고온은 농약이나 유기용제 같은 화학물질의 기화를 촉진하여 흡입량을 늘리고, 식물 생육의 왕성함으로 인한 살충제 사용 증가는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해친다.

- 시설 및 공정 위험: 흉수, 태풍 등 극한 기상은 산업 시설

특히 화학 설비의 노후화나 결함을 유발하며, 이는 대규모 중대재해 및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취약 노동자: 고온 환경 작업자(제철 등), 밀폐 공간 작업자, 개인보호구(PPE) 착용이 필수인 보건의료 및 긴급 대응 인력, 냉방 설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고령 노동자 등이 특히 취약하다.

II.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산재 역설

강 교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노동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위험: 태양광 패널 및 풍력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고소 작업에 의한 추락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공정과 설비에 대한 안전 예방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문제다.

- 순환경 경제 시설의 열악화: 소음, 악취 등 환경 민원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소각장이나 자원회수 시설을 지하 25m 등 밀폐된 공간에 건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하고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 미래 에너지의 독성 위험: 암모니아와 같은 맹독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물질과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III. 안전보건 분야의 제도적 과제와 전문가의 역할

강 교수는 정부의 폭염 예방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산재 감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숨겨진 산재' 발굴 및 과학적 조사: 폭염의 영향은 열사병 뿐 아니라 추락 등 다른 사고의 동반 요인이 되지만, 그 상관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아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열 스트레스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직업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자기 표준(Self-Code)' 마련: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예: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넘어, 각 산업 및 업종별로 고유한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폭염 예방 및 안전 관리 코드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법부처 정책 조율: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환경부와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예: 환경 규제로 인해 유해물질을 실내에서 처리하는 문제 해소 등).

이번 대담을 통해, 강태선 교수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험의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선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출처: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2025년 9월 9일 방송), "기후위기와 노동안전...태양광 풍력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출연: 정의당 권영국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번 대담은 중대재해 감축의 실질적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다. 다음은 대담 내용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의 주요 주장 요약이다.

I. 강태선 교수의 핵심 주장 및 시사점

강태선 교수는 정부가 산재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지시나 발언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 산재 발생 원인 진단: 경기 지수보다 업무 강도가 더 중요

- 건설 경기와 산재 간의 관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사망률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핵심 변수: 경기 지수보다는 노동 시간 단축과 공정 압축에 따른 돌관 작업(야리끼리 등) 같은 업무 강도가 사망의 더 큰 변수라고 분석하며, 안전을 고려한 표준 노동 관행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및 집행 문제

- 사법 지연 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3심까지 진행되는 데 약 5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지연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징금 도입의 효과: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제도에 대

해, 기업은 형사처벌보다 매출액 대비 부과되는 행정처분(과징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사례를 예로 들어, 산안법에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 시설 투자 유도와 신속한 정의 실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집행 기관의 문제: 중처법의 실효성이 낮은 근본 원인은 법 자체의 한계보다 집행 기관(특히 검찰)이 법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3.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 정보 공개의 중요성: 일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사비공개 원칙을 완화하고,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재발 방지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사례와 고용노동부의 사고 백서 발간 사례를 인용하며, 다른 기업이 이를 통해 법 준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 인프라 확충: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위해 '전략적 근로 감독'을 본부 조직이 빅데이터 등으로 주도해야 하나, 현재 근로감독관 증원이 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부 본부 조직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연구 기능 강화: 안전보건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직 규모가 40년 전과 사설상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이고 충분한 인력의 연구원을 구축해 장기적인 산재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율규범 확립: 궁극적으로 정부의 하향식(Top-down)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모니터링하

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안전이 특정 관리자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문화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II. 대담의 결론: 단순한 구호에서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산재 관련 메시지는 행정 당국이 안전보건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담자들은 이러한 상층부의 의지가 하청 구조(위험의 외주화), 발주자의 책임 문제, 중처법의 집행 실효성 제고, 수사 인프라 및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연구 및 정책 본부 조직 강화 등의 구조적 과제 해결로 이어질 때에만 산업재해 사망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한 마디만 더 할게 클럽'(2025년 9월 5일 방송), "권영국 & 강태선,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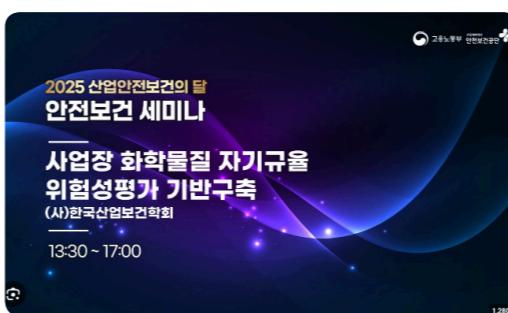


사업장 화학물질 자기규율 위험성평가 기반 구축



- 주최 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 일시 2025년 산업안전보건의 달(2025년 7월 9일)
- 참석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신하나 변호사(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4학년) 등

2025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첫 번째 토론자인 신하나 변호사는 본교 안전관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피해자 측 변론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토론을 펼쳐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1.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의 한계 진단과 방향 제시

세 명의 발제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체계가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영국 등 선진국 모델을 토대로 한 근본적 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규범 구조의 문제와 '비례성' 원칙 도입 필요성

- 한국 법제의 한계: 현행 산안법은 위험성 평가를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 철학으로 두지 않고,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등 수많은 의무 가운데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
- 영국 모델(ALARP): 영국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P/SFAIRP)'의 위험 저감 원칙을 중심으로, 위험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비례성(Proportionality) 개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법적 면책 기준을 제시한다.
- 제언: 한국도 위험성 평가에 비례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복잡한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감독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2. 박미진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

예방 시스템과 인프라의 부재

- 산안법의 예방 기능 실패: 현행 산안법은 산업보건의 기본원칙인 '노출 경로 차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이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 화학물질 관리의 난제: 화학물질은 비가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질병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직업병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질병 관리가 특히 취약하다.
- 제언: 산재 예방 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비(R&D) 비중이 2% 미만으로 매우 낮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노출 저감 지원 프로그램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업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업종별·공정별 관리 기준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3. 최성필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정부의 자기반성과 제도 개편 방향

- 정부의 자기 반성: 국내 유통되는 약 3만 3천 종의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800여 종만 관리하면 된다는 잘못

된 인식을 정부가 심어주었다고 자성했다.

- 3대 개편 방향: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당위성(Necessity), 체계성(Systemic), 유연성(Flexibility)의 세 가지 원칙으로 개편해 자기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당위성: 유해성이 확인된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체계성: 법령 구조를 위험 관리의 위계(제거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지금)에 따라 재정렬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유연성: 목적(안전 확보)은 명확히 하되, 수단은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허용해 이행력을 높인다.

2. 신하나 변호사: 참사를 통해 본 자기규율의

현실과 중처법의 역할

토론자로 참여한 신하나 변호사는 리튬전지 폭발 사고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법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 제도의 작동 불능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 서류만 있었던 위험성 평가: 아리셀은 서류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2022년과 2023년 보고서가 '오타까지 동일한' 복제 수준이었다. 핵심 위험 요인인 리튬 전지 연쇄 폭발 및 대형 화재는 원가 절감에 집중한 경영진의 비협조로 발굴조차 되지 않았다.
- 권한(예산)의 부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예산 집행 권한이 없어,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실질적 개선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 노동자의 알권리 무시: 재판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MSDS 교육 의무가 현장에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제언-중처법(SAPA)의 레버리지 활용: SAPA는 경영책임자(사장)를 법정에 세워 예산 집행과 실질적 위험 관리 책

임을 명확히 하는 강력한 수단(Leverage)이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위험 저감 활동이 되려면, SAPA와 연계하여 경영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3. 지정 토론자 핵심 제언

류현철 이사장 “역사적 맥락과 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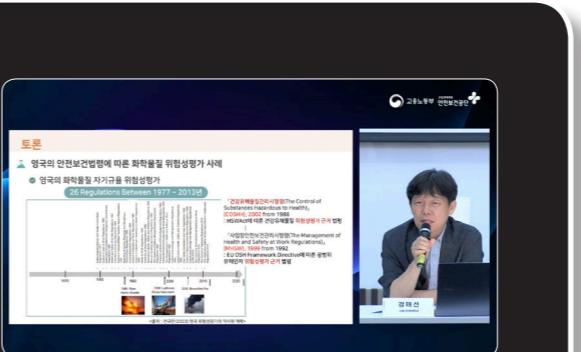
영국이 지시적 규제에서 자기규율로 전환했듯, 우리나라도 외국 법제의 걸모습을 단순히 도입하기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법의 빈틈을 메우는 꼼꼼한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문 이사 “정량적 관리와 업종별 스탠더드”

고위험 등급 개선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 컨설팅 지원과 업종별 선행 연구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선 교수 “중처법의 레버리지와 산업계 협력”

현행 산안법과 위험성 평가는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APA를 지렛대로 삼아 고위험 산업(건설업, 배터리 제조업 등)이 모여 위험성 평가 스탠더드(규범)를 개발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중처법상 면책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범력 부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와 함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산업현장 맞춤형
안전전문가로 성장해 보세요



안전관리학과 밴드에 가입하시면 학교 공부 및 진로 개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학과 홈페이지 '안전정책', '자료실'에서 최신 안전보건 동향 정보를 접해보세요.



The 3rd
Student Council of Safety Management

